

기독교대학생의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과 성별 간 다집단 분석 -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Christian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Gender Comparison Using Multiple Group Analysis -

정숙희 (Sookhee Jung)(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은수 (Eunsoo Lee)**

김재영 (Jaeyoung Kim)***

신성만 (Sungman Sh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mong Christian college students. For this study, 656 Christian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re used to evaluate model fit and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depression has led to smartphone addiction. Second,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It means that family resilience reduces individuals' depression and low-level of depression decreases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Lastly,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goodnews@handong.edu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Korea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eunsoo9090@gmail.com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Institute of Basic Science),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대 수리과학관, jaykim870418@gmail.com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sshin@handong.edu

2019년 04월 13일 접수, 05월 31일 최종수정, 06월 03일 게재확정

gender differences were examin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Depression has larger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female students rather than male student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ntervention of Christian community are required to decrease students' depression and to strengthen the family resilience.

Key Words : Christian college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family resilience, depression, mediating effect, multi-group analysis

I. 서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의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89.6%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3.6%로 동일 기간 일본(60~70%), 중국(6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이처럼 국내에서 특히 높은 보급률을 보이는 스마트폰은 기존의 휴대전화 기능에 더하여 어플리케이션, SNS, 미디어, 게임 등의 기능을 갖추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유용성, 접근성, 편리성 등의 이면에는 디지털 매체의 확대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이 존재한다(신광우 외,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2019)에 따르면 스마트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2014년도 12.2%에서 2016년 15.3%, 2018년도 13.8%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더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는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 군의 경우 2014년도 2.0%에서 2016년도 2.5%로, 2018년 2.7%로 늘어나 매년 상승 추세에 있다. 그 중에서도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 중 20대가 고위험군 3.4%, 잠재위험군 20.6%를 기록하며 10대에 이어 대학생 시기에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자유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중·고등학생 시기에 비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용하기가 훨씬 용이하여 중독 위험률이 높을 수 있다(이보라 외, 2005; 전호선·장승옥, 2014).

성인 초기 발달 과업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 때, 스마트폰 중독은 거북목 증후군, 수면장애, 눈의 피로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윤주영 외, 2011; 황경혜 외, 2012)는 물론 강박증, 정신증, 불안,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건강 문

제(황경혜 외, 2012; 이성철 외, 2014)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인지·정서적, 관계적 발달을 저해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기독교대학생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연구에서 기독교대학생과 청소년 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병년 외, 2013; 장성화·진석연, 2009), 특히 개인의 종교적 영적 안녕감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박명준·신성만, 2014).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 차원에서의 개입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정신건강 문제에서 기독교청년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기독교대학생들을 위한 신앙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김병년 외, 2013).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부모양육태도, 가족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이 있으며(김병년 외, 2013; 김병년·최홍일, 2013; 이현숙, 2016; 조선희·전경숙, 2016), 개인적 요인으로는 우울, 불안, 충동성,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미 외, 2014; 안주아, 2016; 유승숙·최진오, 2015; 이진령 외, 2014; 전호선·장승옥, 2014; 조규영·김윤희, 2014). 이 중 우울, 불안, 충동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 요인은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것으로 중독의 상담 및 치료 영역과도 관련을 가지며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 중에서 가족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가족탄력성이란 가족을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간주하여 위기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발전해 나가는 능력을 뜻한다(Walsh, 1996). 즉, 가족탄력성이 높은 가족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여 역경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구성원들의 가정 내 경험과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Patterson, 2002). 따라서 높은 탄력성을 가진 가족은 구성원의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적응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도록 하여 삶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우울감을 경감시키고 중독 문제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가족탄력성이 낮은 경우 환경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우울감의 증가와 그로 인한 스마트폰 과의존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가 스마트폰 중독을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는데(김병년, 2013), 그 중 우울은 현대 대학생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로 스마트폰 중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많은 실증적 연구에서는 일반집단에 비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져(Thomee et al., 2011), 우울 수준이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강력한 위험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이어리·이강이, 2012).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감과 영향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특징적인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진령 외, 2014; 안주아, 2016; Demirci et al., 2015; Haug et al., 2015).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단순한 집단 비교를 넘어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김재엽·황현주, 2016; 전호선·장승옥, 2014). 이처럼 성별에 따른 단순한 집단 비교에서부터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 결과에서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전호선·장승옥, 2014).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함에도 가족관련 요인 중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정신건강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우울정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현재 기독교 내부에서 스마트폰 중독 자체에 초점을 맞춘 국내 실증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적다. 지금까지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 이루어진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조절 효과를 규명한 연구(정숙희 외, 2015)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박진희·전요섭, 2013),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 사이에서 신앙 성숙도의 매개 관계를 검증한 연구(오인근, 2019) 등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족 요인과 정신건강 요인,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탄력성이 기독교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우울정도가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독교대학생의 우울정도와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가족탄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독교대학생의 우울정도는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기독교대학생의 가족탄력성, 우울 및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생활 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내성, 금단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신광우 외, 2011).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장애’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은 현실보다 가상공간에서 관계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내성’은 스마트폰을 예전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금단’은 스마트폰 사용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 불안이나 강박적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이처럼 일상생활 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내성, 금단의 4가지 하위차원을 포함한 개념을 스마트폰 중독이라 할 수 있다.

위험상황에서 가족이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탄력성은 가족 구성원의 가정 내 경험과 대처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tterson,

2002). Walsh(1996)는 가족탄력성이 높은 가족은 역경 앞에서도 의미를 찾아 긍정성을 유지하고, 탄력성이 높은 가족은 구성원들 간의 분명한 경계를 유지하되 그 역할은 안정적이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또한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감정표현에 있어 개방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의존 가족에서 나타나는 경계의 모호함과 감정의 억압, 과도한 통제 노력 등의 특징과 상반되며, 동시에 가족체계 이론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가족 기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은 중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가족 취약성과 상반되는 특징을 반영하므로 가족탄력성이 구성원의 중독에 주요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가족탄력성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연관시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혜령(2015)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민정, 2016)를 통해 가족탄력성이 우울과 인터넷 게임중독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이충효(2015)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가족관련 요인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부모님이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적절한 가족 기능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부모-자녀 관계와 연관된 변인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장재홍·김광현, 2009), 그 중 다수의 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 부모-자녀 갈등, 의사소통 양식 등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김병년 외, 2013; 이수진·문혁준, 2013; 이은정·어주경, 2014). 구체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 상호작용은 적절하고 자유로운 감정표현, 자녀의 정서적 욕구 충족, 정서적 지지의 제공 등을 포함하며 이는 일탈행동을 증재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낮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김대명·조준수, 2015; 이지원, 2011; 임훈정, 2015). 반면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 결핍, 억압된 정서 표현, 과도한 정서 관여, 의사소통의 부재, 과도한 행동통제, 낮은 지지 수준 등을 포함하며 이는 높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배성만 외, 2012; 신영주·최정윤, 2003).

한편, 중국, 타이완, 터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Gunuc and Dogan, 2013; Li et al., 2014)에서는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

가 낮았으며, 가족이 덜 응집적이며, 부모가 더 냉담하고, 부모-자녀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관계와 인터넷 중독, 물질 사용 경험을 함께 살펴본 연구(Yen et al., 2007)에서 부모-자녀 갈등, 낮은 부모의 지지 수준, 낮은 가족 기능의 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물질 남용 수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과 물질 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이 공통적임을 보고했다.

이처럼 비록 직접적으로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가족 요인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연관시켜 살펴본 많은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체계의 의사소통과 역할, 가족 규칙 등 가족탄력성과 관련된 요인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족탄력성과 우울

가족탄력성은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 사건과 스트레스 수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며, 따라서 가족탄력성이 낮을 경우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사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박지현, 2009). 또한 가족탄력성이 낮은 경우 외부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족 기능이 저하되며 이는 곧 가족의 전체적인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로 연결되어 구성원 개개인에게 부정적 심리·정서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가족 구성원이 문제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때 가족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저하되어 있거나 부족할 때 개인의 우울감이 증가하므로 낮은 가족탄력성은 우울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족탄력성과 우울 수준을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이영경·정명희, 2013)에서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스트레스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가족 내에서의 관계적 지원을 강화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과 가족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인정, 2007; 김현주·이성애, 2011). 특히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중독자 가족 등 위기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다양한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에

따라 가족의 적응력, 긍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 등 가족의 적응적 행동과 심리·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살 사고,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행섭·김진숙, 2008; 심미영 외, 2014; 안성아·심미영, 2013; 우재희, 2014).

또한 가족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응집성, 가족건강성 변인 또한 개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에서 긍정적인 심리정서적 경험을 하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적응적이며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의 심리적 자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역기능적인 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하진·김정옥, 2009; 조은경·정혜정, 2009; 김순기·유영주, 2001).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가족에서의 경험은 개인의 정서적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히 가족탄력성은 가족과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쳐 가족 구성원의 우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많은 연구자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으로 다양한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우울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주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로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병년 외, 2013; 정희진, 2014; 황경혜 외, 2012; 황승일, 2013; Demirici et al., 2015),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의 우울 수준이 일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병년, 2013; 박용민, 2011; 전호선·장승옥, 2014; Thomee et al., 2011).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 대인관계 위축, 활동에 대한 전반적 관심의 감소 등으로 인해 타인을 만나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접근이 쉽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스마트폰에 몰입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병년 외,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우울감이라는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며, 정서조절 능력이

낮으며 부정적 정서에 대처 방략이 빈약할수록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김은영 외, 2016). 이와 같이 우울은 부정적 감정 경험을 유발하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나 가상세계로 몰입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대학생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정서조절 등의 개인 심리내적 요인은 물론 부모양육태도, 대학생활 적응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의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기숙, 2015; 김대명·조준수, 2015; 김은영 외, 2016; 심미영 외, 2016; 유승숙·최진오, 2015). 즉,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인이 다양한 원인을 통해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 우울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이 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현재까지 스마트폰 중독을 주제로 이루어진 다수의 사전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성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주아, 2016; 이진령 외, 2014; 황경혜 외, 2012; 이성철 외, 2014; Demirci et al., 2015; Haug et al., 2015). 연구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선호하고 관계 지향적인 특징을 보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평소 스마트폰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로 인해 여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이진령 외, 2014). 또한 여학생들은 감정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일어날 경우 문자, SNS 사용 등을 통해 대처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남학생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검색, 오락, 업무처리를 주로 하는 반면 여학생은 문자, SNS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밝혀졌다(Bianchi and Phillips, 2005; Park and Lee, 2014).

한편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스마트폰 중독 관련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다수 밝혀지고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살펴본 전호선, 장승옥(2014)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 황현주(2016)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경우에서만 아동학대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경로에서 우울감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스마트폰 중독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며,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에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H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입학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769명의 신입생 중 응답에 결측이 있는 15명을 제외하고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한 6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318명으로 전체의 48.5%이고, 여학생은 338명으로 전체의 51.5%였다. 경제적 수준은 하위 수준으로 응답한 학생이 92명으로 전체의 14.2%, 중간 수준으로 응답한 학생이 425명으로 전체의 65.7%, 상위 수준으로 응답한 학생이 129명으로 전체의 19.9%였다.

2. 측정 도구

(1) 가족탄력성

본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Walsh(1998)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김미옥(2001)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 가족이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가족통제감과 갑작스런 위기가 있을 때 상호협력적인 노력을 통하여 강화되는 가족강점이 있다. 가족통제감은 Antonovsky와 Sourani(1998)가 개발한 가족통제감 1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으로는 ‘내가 지치고, 기운이 없고, 화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내 감정을 잘 알아준다’, ‘가족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늘 해결책을 찾는다’ 등이 있다. 가족강점은 Olson(1993)이 개발한 가족강점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고, ‘우리 가족은 자

랑스럽다’, ‘서로를 존중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 방법(internal consistency approach)을 사용하여 각 하위요인을 평균내어 총 6개의 측정변수로 만들었다(Little et al., 2002).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 하위문항인 가족통제감과 가족강점은 .88로, 전체문항은 .93으로 나타났다.

(2)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신선인(2001)에 의해 타당화된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20)의 우울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우울한 증상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 ‘매우 그렇다’부터 4점 ‘매우 아니다’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높은 점수일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 적이 많았다’,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69로 나타났다.

(3)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 외(2012)가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상생활 장애 5문항, 가상세계 지향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으로 4가지 요인을 측정하는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의 범위는 15점부터 60점까지로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묶음(parceling)은 내적 일관성 방법을 사용하여 각 하위요인을 평균 낸 총 4개의 측정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8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수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0.0을 통해 기술 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plus 7.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했다.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은 각 사례 수준의 우도함수를 계산하여 결측치가 존재하는 그대로 불완전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MCAR이나 MAR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통적인 방법보다 정확한 추정방법이다(Arbuckle, 1996). 또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의 적합도와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고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매개효과를 붓스트랩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여러 적합도 중에 CFI, TLI, RMSEA를 같이 선정하여 결과에 제시하였다. CFI와 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기저모형에 비해 이론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며, 두 지수 모두 .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90 이상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반면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06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낸다(Hu and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에서 남녀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를 실시하였다.

4.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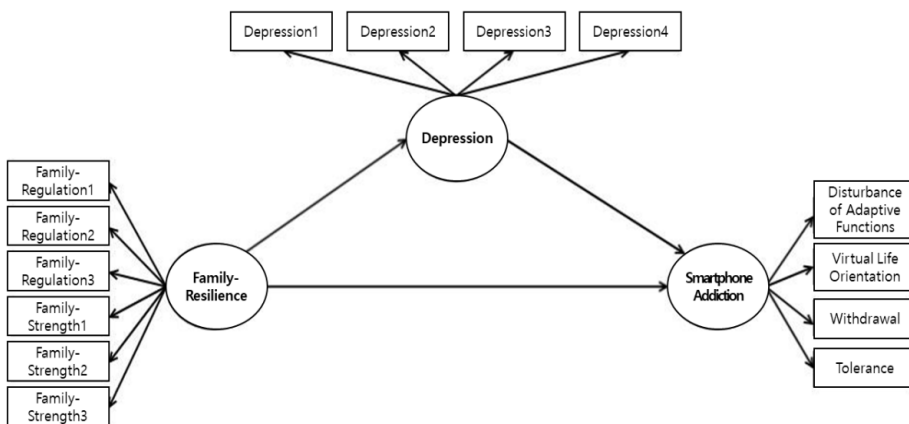


Figure 1. Graphical Representation of Mediation Model of Family-Resilience,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하여 Table 1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가족탄력성 하위측정변인의 평균값은 3.37에서 3.97, 우울은 1.52에서 2.35, 스마트폰 중독은 1.54에서 2.37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 Probability Analysis of the Major Variables

Latent Variables	<i>M</i>	<i>SD</i>	Indicators	<i>M</i>	<i>SD</i>	Skewness	Kurtosis
Family Resilience	3.72	0.61	Family Regulation1	3.82	0.73	-.381	-.447
			Family Regulation2	3.80	0.71	-.521	.083
			Family Regulation3	3.57	0.55	-.448	.128
			Family Strength1	3.37	0.69	-.228	.043
			Family Strength2	3.83	0.75	-.467	-.143
			Family Strength3	3.97	0.79	-.709	.261
Depression	2.07	0.57	Depression1	2.28	0.81	.083	-.564
			Depression2	2.13	0.83	.367	-.393
			Depression3	2.35	0.86	-.018	-.725
			Depression4	1.52	0.61	.794	.072
Smartphone Addiction	2.00	0.44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	2.24	0.57	-.072	-.242
			Virtual Life Orientation	1.54	0.48	.602	-.098
			Withdrawal	1.87	0.53	.281	-.240
			Tolerance	2.37	0.58	-.202	.024

주1) Family Resilience의 하위측정변수로 가족통제감 18문항과 가족강점 12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주2) Depression의 하위측정변수로 일반정신건강척도(KGHQ-20)의 우울 4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715**	1												
3	.654**	.671**	1											
4	.579**	.582**	.570**	1										
5	.728**	.723**	.646**	.632**	1									
6	.755**	.749**	.680**	.636**	.822**	1								
7	-.146**	-.076*	-.165**	-.148**	-.139**	-.148**	1							
8	-.234**	-.187**	-.196**	-.233**	-.227**	-.243**	.403**	1						
9	-.126**	-.085*	-.101**	-.142**	-.118**	-.126**	.424**	.579**	1					
10	-.269**	-.291**	-.283**	-.194**	-.259**	-.261**	.262**	.273**	.193**	1				
11	-.120**	-.120**	-.124**	-.089*	-.123**	-.096*	.227**	.170**	.259**	.123**	1			
12	-.198**	-.193**	-.164**	-.216**	-.188**	-.187**	.263**	.282**	.230**	.245**	.446**	1		
13	-.179**	-.135**	-.164**	-.156**	-.126**	-.131**	.262**	.209**	.208**	.141**	.435**	.603**	1	
14	-.154**	-.145**	-.169**	-.144**	-.134**	-.117**	.270**	.210**	.254**	.120**	.712**	.461**	.504**	1

주) 1-Family Regulation1, 2-Family Regulation2, 3-Family Regulation3, 4-Family Strength1, 5-Family Strength2, 6-Family Strength3, 7-Depression1, 8-Depression2, 9-Depression3, 10-Depression4, 11-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 12-Virtual Life Orientation, 13-Withdrawal, 14-Tolerance

2.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 우울, 스마트폰 중독 잠재변인의 구성개념이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324.555(df = 74)$, CFI=.946, TLI=.934, RMSEA=.072로 적절하게 나타나,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구조모형 검증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가 $\chi^2 = 324.555(df = 74)$, CFI=.946, TLI=.934, RMSEA=.072

로 본 연구의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탄력성이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 = -.304, p < .01$), 이는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392, p < .01$). 이는 우울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탄력성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 = -.067, p > .05$), 이는 우울이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The Path Coefficient among Major Variables

경로	<i>b</i>	<i>s.e.</i>	β	Bias-corrected 95% CI	
				Lower	Upper
Family Resilience→Depression	-0.232**	0.044	-0.304	-0.319	-0.148
Depression→Smartphone Addiction	0.392**	0.392	0.405	0.296	0.503
Family Resilience→Smartphone Addiction	-0.067	0.038	-0.091	-0.143	0.005

* $p < .05$, ** $p < .01$

3.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부스트랩은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신뢰구간을 제시해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본다. Table 4에서 매개효과는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The Result of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경로	<i>b</i>	<i>s.e.</i>	β	Bias-corrected 95% CI	
				Lower	Upper
Total Effect	-0.158	0.036	-0.214	-0.231	-0.070
Direct Effect (Family Resilience→Smartphone Addiction)	-0.067	0.038	-0.091	-0.143	0.034
Mediating Effect (Family Resilience→Depression→Smartphone Addiction)	-0.091	0.020	-0.123	-0.133	-0.045

4. 성별 간 다집단 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잠재변수 간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로계수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구조 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 순서로 검증하였다.

(1) 형태동일성 검증

남녀 집단별 구조방정식 모형에 어떠한 모수의 제약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형 적합도를 검증해 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chi^2 = 461.539(df = 159)$, CFI=.935, TLI=.926, RMSEA=.076로 적절하게 나타나,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의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으므로, 남녀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측정변수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모형과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을 비교하였다. 각 모형은 내재된(nested) 관계이므로 모형비교에 χ^2 차이검증을 사용하였다. Table 5를 보면, 측정동일성모형과 기저모형 간의 χ^2 값 차이는 15.46($df = 11$)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다.

Table 5 Goodness-of-fit index of Invariance Test

Model	χ^2	df	CFI	TLI	RMSEA
1: Configural Invariance (base model)	461.539	159	0.935	0.926	0.076
2: Metric Invariance	476.998	170	0.934	0.930	0.074
3: Structural Invariance (path a constrained)	477.459	171	0.934	0.930	0.074
4: Structural Invariance (path a & b constrained)	484.380	172	0.935	0.931	0.074
5: Structural Invariance (path a & c constrained)	480.093	172	0.934	0.930	0.074

주) path a: Family Resilience→Depression, path b: Depression→Smartphone Addiction, path c: Family Resilience→Smartphone Addiction

(3) 구조동일성 검증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족탄력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가 남녀 집단 간에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해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_{\Delta} = 0.461, df = 1$). 그 다음으로 가족탄력성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계수에 대해 남녀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한 결과, 경로계수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_{\Delta} = 2.634, df = 1$). 마지막으로 우울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계수에 대해 남녀 집단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chi^2_{\Delta} = 6.921, df = 1$). 따라서 남녀 간 가족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만,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6에 남녀별 경로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고($\beta = -0.226, p < .01$),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았으며($\beta = -0.071, p < .05$), 우울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84, p < .01$). 여학생의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고($\beta = -0.226, p < .01$),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았으며($\beta = -0.071, p < .05$), 우울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beta = 0.480, p < .01$). 이 결과에서 여학생의 우울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계수가 남학생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 The Path Coefficient of Structural Model

Path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i>b</i> (<i>s.e.</i>)	β	<i>b</i> (<i>s.e.</i>)	β
Family Resilience→Depression	-0.226(.041)	-0.264**	-0.226(.041)	-0.332**
Family Resilience→Smartphone Addiction	-0.071(.035)	-0.098*	-0.071(.035)	-0.100*
Depression→Smartphone Addiction	0.284(.059)	0.337**	0.480(.084)	0.460**

* $p < .05$, ** $p < .01$

다음으로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우울의 매개효과를 남녀별로 살펴본 결과, Table 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둘 다 우울이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Mediating effect of Male and Female Students

Group	<i>b</i>	<i>s.e.</i>	β	Bias-corrected 95% CI	
				Lower	Upper
Male Students	-0.064	0.018	-0.089	-0.101	-0.032
Female Students	-0.108	0.025	-0.153	-0.161	-0.062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여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과 개입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수

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정은 외, 2013; 김병년 외, 2013; 이상준, 2015; 전민, 2012; 정희진, 2014; 황경혜 외, 2012; 황승일, 2013). 이는 우울한 증상이 있는 경우,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현실을 회피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독교대학생과 일반 대학생 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 선행 연구와(김병년 외, 2013; 장성화·진석연, 2009), 종교적 안녕감이 스마트폰 중독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박명준·신성만, 2014)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하는 집단에서도 우울감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가족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우울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대학생이 속한 가족의 탄력성이 낮을 경우 높은 우울성향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등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가족 변인(김대명·조준수, 2015)과는 다르게 가족탄력성의 경우, 탄력성이 낮아질수록 우울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탄력성은 가족 외부의 스트레스 환경과 관련된 변인이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높은 가족탄력성은 가족 내 관계적 지원, 적응력, 긍정 정서, 안녕감 등 부정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증가시키는 반면 낮은 가족탄력성은 자살사고, 우울, 불안 등의 부정 정서와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져 왔다(박인정, 2007; 김형섭·김진숙, 2008; 김현주·이성애, 2011; 심미영 외, 2014; 안성아·심미영, 2013; 우재희, 2014).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소속된 가족 내에서 위험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대처로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가족탄력성, 우울 및 스마트폰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남녀 대학생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울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계수를 검증했을 때,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 결과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적이 주로 감정과 연관이 있는 문자, SNS에 있다는 선행연구(Bianchi and Phillips 2005; Park and Lee, 2014)의 결과를 연관 지어 해석해보면 여학생의 경우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감정 중심의 대처를 위해 스마트폰을 활발하게 이용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제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기독교 청년들이 우울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청년들의 스트레스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기독교 청년의 우울감을 예방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건강과 함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우울한 기분에 대한 신앙적 접근의 노력과 더불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내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고 기독교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통해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기독교대학생의 영육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이 될 것이다.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이 우울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청소년 및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힌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의 강점을 활용하여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해내는 가족 경험이 개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 체계 간에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직된 관계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삶의 역경 앞에서 가족이 연합하고, 문제점과 어려움보다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와 학교 등 사회의 중간 체계에 속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기독교 청년의 개인적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속한 가정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가족 상담과 지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독교대학생의 가족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부모나 교사 등 권위자가 독선적이고 복종을 요구할수록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현숙, 2007; 이진영, 2004), 교회나 학교를 포함한 사회 중간체계에 속하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전통적인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지위의 고하에 따라 구성원간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닫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보다 구성원 모두가 사랑 안에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개인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관계를 경험하고 학습하여 각 구성원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기독교 가정의 경우 가족 내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구성원간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랑 안에서 상호 지지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통해 가족 개개인이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앞에서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학생과 비교했을 때 여학생에게서 우울이 스마트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기와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인 관계망을 유지하고 소통하는데 관심이 높아서 스마트폰의 SNS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하고 사용시간과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Lee et al., 2016). 이를 고려할 때, 스마트폰 사용의 올바른 시간관리 및 적절한 통제력을 기르고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 지역의 기독교 대학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국에 있는 다양한 기독교대학생 집단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족탄력성 변인과 관련해서 연구 대상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 다양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가족의 기독교인 여부나 부모-자녀 간의 대화시간 같은 가족 특성 변인을 포함시켜 연구한다면 더 풍부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외에 영성, 신앙심, 영적 안정감 등의 관련 변인이 다양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 기독교

대학생의 우울과 중독에 영향을 주는 기독교적 요인이 다양화, 세분화 된다면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기독교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간의 스마트폰 중독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비기독교인 대학생의 표본 수가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결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검증한다면 기독교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간의 스마트폰 중독 경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대학생 사회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가족탄력성과 우울과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성별차이 검증을 통해 성별에 따른 개입의 방향성 제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혜령 (2015). **고등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불안과 우울의 매개효과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Gang, H. R. (2015). *The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Academic Life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 With Self Resilience and Family Resilience as the Parameters*. Doctoral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고기숙 (2015).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2, 189-216.
- [Go, G. S. (2015).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Adaptation. *The Journal of School Social Welfare*, 32, 189-2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2018). *2018 Internet Usage Survey Summary Report*.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 김경은 외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이화간호학회지**, 47, 27-42.
- [Kim, G. E. et al. (2013). Relationship between Smart 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and Anxiety Levels amo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wha Nursing*, 47, 27-42.]
- 김대명 · 조준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불안과 우울의 매개효과. **교육종합연구**, 13(2), 151-169.
- [Kim, D. M. and Jo, J. S. (2015). Mediating Effect of Anxiety and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ther and Mother Rearing Attitude and Smartphone Addiction. *Comprehensive Study of Education*, 13(2), 151-169.]
- 김동일 외 (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629-644.
- [Kim, D. I. (2012). Development of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s: Self-repor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2), 629-644.]
- 김미옥 (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영향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8, 9-40.

- [Kim, M. O. (2001). A Study on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f Adaptation of Famil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8, 9-40.]
- 김민경 (2016).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과 가족탄력성 및 인터넷게임중독의 관계에 대한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1), 205-210.
- [Kim, M. G. (2016).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tress, Depression, Family Resilienc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The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205-210.]
- 김병년 (2013). 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9, 49-81.
- [Kim, B. N.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Smartphone-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9, 49-81.]
- 김병년 외 (2013).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67-98.
- [Kim, B. N. et al. (201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A Focus on Differences in Classifying Risk Groups. *Studies on Korean Youth*, 24(3), 67-98.]
- 김병년 · 최홍일. (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1), 1-25.
- [Kim, B. N. and Choi, H. I. (2013). Effects of Study Overprotective Parent's Raising Attitude on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Addic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29(1), 1-25.]
- 김수미 외 (2014). 대학생에서 우울, 충동성, 회복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3(4), 214-220.
- [Kim, S. M. et al. (2014). The Effect of Depression, Impulsivity, and Resilience on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53(4), 214-220.]
- 김순기 · 유영주 (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43-64.
- [Kim, S. G. and Yoo, Y. J. (2001). The Effects of Family - of - origin's Emotional Health and Ego - identity on Psychological Well - being of Married Young Adults. *Th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6(1), 43-63.]
- 김은영 외 (2016). 대학(원)생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

- 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6), 97-118.
- [Kim, E. Y. et al.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fficulty in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6), 97-118.]
- 김재엽 · 황현주 (2016). 아동학대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우울의 매개효과 검증과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53, 105-133.
- [Kim, J. Y. and Hwang, H. J. (2016).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3, 105-133.]
- 김현숙 (2007). 공유적 권위와 기독교 교육. **기독교교육정보**, 17, 193-214.
- [Kim, H. S. (2007). The Role of Shared Authority in Christian Education. *Korea Society for Christio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7, 193-214.]
- 김현주 · 이성에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3(3), 215-241.
- [Kim, H. J. and Lee, S. A. (2011).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Comparison of Single Parent Family and Two-parent Famil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3), 215-241.]
- 김행섭 · 김진숙 (2008). 상담일반: 자녀 스트레스가 여성 한부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처전략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9(4), 1567-1584.
- [Kim, H. S. and Kim, J. S. (2008). The Effect of the Parenting Stress on Single Mothers' Adaptation-with the Mediation of Coping Strategy and Family Resili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4), 1567-1584.]
- 박명준 · 신성만 (2014).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이 인터넷 게임, 사이버섹스,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중독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2), 753-771.
- [Park, M. J. and Shin, S. M. (2014). The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on Addictions to Internet Games, Cybersex and Smartphone Use among Korean Youth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5(2), 753-771.]
- 박용민 (2011).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Park, Y. M. (2011). *A Study on Adults' Smart Phon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Doctoral Thesis. Sangji University, Wonju, Korea.]

- 박인정 (2007). **한국 이혼자녀의 가족 Resilience에 대한 사례연구 : 가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Park, I. J. (2007). *A Case Study on the Family Resilience of Korean Divorced Child : Focused on the Family Process*. Doctoral Thesis. Seoul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 박지현 (2009).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Park, J. H. (2009). *The Effects of Family Stress and Resilience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Middle Age*.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 박진희 · 전요섭 (2013).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과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신앙과 학문**, 18(4), 141-164.
- [Park, J. H. and Jeon, Y. S. (2013). Relationship among Covert Narcissism, Smart Phone Addiction and Spiritual Wellbeing in Christian Adolescents. *Faith & Scholarship*, 18(4), 141-164.]
- 배성만 외 (2012).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529-544.
- [Bae, S. M. et al. (2012).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ternet Addic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3), 529-544.]
- 서하진 · 김정옥 (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41-178.
- [Seo, H. J. and Kim, J. O. (2009). Self-esteem and Happiness caused by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141-178.]
- 신광우 외 (2011).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 [Sin, G. W. et al. (2011). *Development Report of Smartphone Addiction Diagnosis Scal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신선인 (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 210-235.
- [Sin, S. I. (2001).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 KGHQ-20 & KGHQ-30.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6, 210-235.]
- 신영주 · 최정윤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3(1), 121-122.

- [Shin, Y. J. and Choi, J. W. (2003).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Resources*, 2003(1), 121-122.]
- 심미영 외 (2014). 장애인가족의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4), 267-276.
- [Shim, M. Y. et al. (2014). Influence of Stress on Family Adaptation of Disabled Family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Family Strength.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4), 267-276.]
- 심미영 외 (2016).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관계: 우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5), 227-236.
- [Shim, M. Y. et al. (2016). A Study on Influential Relations between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The Journal of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227-236.]
- 안성아·심미영 (2013).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장애인 가족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7, 277-300.
- [Ahn, S. A. and Sim, M. Y. (2103). Influences of Family Strengths on the Family Stresses and Family Resilience of Disability Famil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7, 277-300.]
- 안주아 (2016).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와 중독; 우울, 충동성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 및 중독이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6(4), 128-162.
- [Ahn, J. A. (2016). A Study on the Smart phone Use Behavior and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Effect of Depression, Impulsiv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 Campus Life.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6(4), 128-162.]
- 오인근 (2019).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신앙성숙도의 매개효과. **복음과 실천**, 63(1), 347-376.
- [Oh, I. G.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Faith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복음과 실천**, 63(1), 347-376.]
- 우재희 (2014). 알코올중독자의 가족관계와 자살과의 관계 연구: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3), 365-386.
- [Woo, J. H. (2014).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Relationships and

- Suicide for Alcoholic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3), 365-386.]
- 유승숙 · 최진오 (2015).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불안, 공격성의 관계: 자기통제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1), 131-144.
- [Yoo, S. S. and Choi, J. O. (2015). The Relationship of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with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Korean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3(1), 131-144.]
- 윤주영 외 (2011).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건강문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3(2), 92-104.
- [Woon, J. Y. et al. (2011). Smart Phone Addiction and Health problem in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3(2), 92-104.]
- 이보라 외 (2005). 외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1), 79-97.
- [Lee, B. R. et al. (2005). The Effect of Extraversion on Adjustment to College -Mediated by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1(2), 79-97.]
- 이상준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따른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비교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7(2), 55-79.
- [Lee, S. J. (2015). Comparison Study of Protective and Risk Factors in Youth's Smartphone Addiction and Smartphone Game Addidc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7(2), 55-79.]
- 이성철 외 (2014).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사회 불안의 상관 관계. **생물치료정신의학**, 20(3), 212-218.
- [Lee, S. C. et al. (2014). The Relationship of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Social Anxiety on Adolescents :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20(3), 212-218.]
- 이수진 · 문혁준 (2013). 중학생의 자기통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6), 587-598.
- [Lee, S. J. and Moon, H. J. (2013). Effects of Self-Control,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n Smart-phone Addic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6), 587-598.]
- 이어리 · 이강이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교생의 중독적인

-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1(2), 27-39.
- [Lee, A. R. and Lee, K. Y. (2012). The Effects of Parental factors, Friend's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Addictive Mobile phone Use of Children.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1(2), 27-39.]
- 이영경 · 정명희 (2013).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족탄력성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1, 111-134.
- [Lee, Y. G. and Jung, M. H. (2013).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n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61, 111-134.]
- 이은정 · 어주경 (2014).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른 고등학생의 충동성과 부모양육 태도의 차이. **생애학회지**, 4(1), 1-17.
- [Lee, E. J. and U, J. G. (2014). The Differences of the Impulsivity and Parenting Attitud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Life-span Studies*, 4(1), 1-17.]
- 이지원 (201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J. W. (2011). *The Effects on the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by Their Parental Attitude and Self-control*. Doctoral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이진령 외 (2014). 성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16(3), 1557-1566.
- [Lee, J. L. et al. (2014). The Effects of Gender, Self-Esteem and Self-Control on the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3), 1557-1566.]
- 이진영 (2004). 부모권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J. Y. (2004). *Adolescence's Self-esteem on Parental Authority : in focus on the Christian Faith*. Doctoral Thesis. Sungkyul University, Anyang, Korea.]
- 이충효 (2015). 초·중·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C. H. (2015). *A Meta-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s Smartphone Addiction*. Doctoral Thesis.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이현숙 (2016).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4), 163-172.
- [Lee, H. S. (2016). A Convergence Study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arent-Son/ Daughter Communication on Addiction to Smartphones :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Stress Level,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163-172.]
- 임훈정 (2015). 부모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Lim, H. J. (2015).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ur and Communication Style on the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 Doctoral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장성화 · 진석연 (2009). 기독교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사회적지지 및 정신건강 비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79-202.
- [Jang, S. H. and Jin, S. W. (2009). A Study of Comparison of Cellular Phone Addiction Level,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Between Christian Teenagers and Non-Christian General Teenager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and Psychology*, 11, 179-202.]
- 장재홍 · 김광현 (2009).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57-183.
- [Jang, J. H. and Kim, G. H. (2009). Research Trends in Internet Addiction in Korea and The West, and Recommendation to Future research: from 1996 to 2007. *The Journal of Future Youth*, 6(4), 157-183.]
- 전민 (2012). 의사소통 불안과 우울취약성이 대학생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Jeon, M. (2012). *Effects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Depressive Vulnerability on College Students' Smart-phone Overuse*. Doctoral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 전호선 · 장승욱 (2014). 스트레스와 우울이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8), 103-129.
- [Jeon, H. S. and Jang, S. O. (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oderating

- Effe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8), 103-129.]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NIPA 자료집: 2017 일본 모바일 시장 현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NIPA (2017). *NIPA Resourcebook: 2017 Japan Mobile Market Status*. NIPA.]
- 정숙희 외 (2015).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조절 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4), 243-273.
- [Jung, S. H. et al. (2015). The Mediating Effect of Faith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6(4), 243-273.]
- 정희진 (2014). **우울과 불안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Jung, H. J. (2014). *The Impa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Youth Smartphone Addiction*. Doctoral Thesis. Myo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조규영 · 김윤희 (2014).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3), 1632-1640.
- [Cho, G. Y. and Kim, Y. H. (2014).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632-1640.]
- 조선희 · 전경숙 (2016).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관련 요인. **스트레스연구**, 24(1), 13-22.
- [Cho, S. H. and Jeon, G. S. (2016). Correlates of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4(1), 13-22.]
- 조은경 · 정혜정 (2009). 원가족 건강성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05-132.
- [Cho, E. G. and Jung, H. J. (2009).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Mediated the Effect of Family-of-origin Health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4), 105-132.]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8년 스마트폰 ·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한국정보화진흥원.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 *Smartphone · Internet and Dependency Survey Result of 2018*.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황경혜 외 (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365-375.
- [Hwang, G. H. et al. (2012). Smartphone Overuse and Upper Extremity Pain, Anxie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0), 365-375.]
- 황승일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Hwang, S. I. (2013). *Study on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Smart phone Addiction*. Doctoral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Antonovsky, A. and Sourani, T. (1988).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9-92.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A. Marcoulides and R.E. Schumacker (Ed.).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ianchi, A. and Phillips, J. G. (2005).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roblem mobile phone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8(1), 39-51.
- Demirci, K. et al. (2015). Relationship of smartphone use severity with sleep quality, depression and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2), 85-92.
- Gunuc, S. and Dogan, A.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Turkish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heir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family activiti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 2197-2207.
- Haug, S. et al. (2015). Smartphone use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young people in Switzerland.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4), 299-307.
- Hu, L. T. and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Lee, K. E. et al. (2016). Dependency on smartphone use and its association with anxiety in Korea. *Public Health Reports*, 131(3), 411-419.
- Li, W. et al. (2014). Family factors in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youth: A review of English-and Chinese-language studi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s*, 31, 393-411.
- Little, T. D. et al.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151 - 173.
- Olson, D. H. (199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2nd ed.)*. New York: GuilfordPress.
- Park, N. and Lee, H. (2014). Gender Difference in Social Networking on Smartphones: A Case Study of Korean College Student Smartphone User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21(2), 1-18.
- Patterson, J. M. (2002).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49-360.
- Thomee, S. et al. (2011). Mobile phone use and stress, sleep disturbance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a prospective cohort study. *BMC public health*, 11(1), 66.
- Walsh, F. (1996).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35(3), 261-281.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Yen, J. et al. (2007). Family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and Substance Use Experience in Taiwanese Adolescents. *Cyber Psychology & Behavior*, 19(3), 323-329.

논문초록

기독교대학생의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과 성별 간 다집단 분석 -

정숙희 (교신저자/한동대학교)

이은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재영 (기초과학연구원)

신성만 (한동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대학생의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 이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여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개입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H 대학교 기독교학생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성별 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은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여 가족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우울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성별 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가족탄력성을 높이고 대학생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대학생, 스마트폰 중독, 우울, 가족탄력성, 매개효과, 다집단 분석